

---

# 2020년 제17호 방송심의보고서

---

2020. 4. 17. ~ 4. 23.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밥보다 법		
방송일자	2020. 4. 18.	시청률	0.000

### 【총 평】

코로나19는 국민건강면에서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데 이어 사회생활면에서도 엄청난 변화를 불러왔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비대면 온라인 소비를 선호하면서 언택트 상거래가 급부상하고 덩달아 이에 따른 소비자 불만도 폭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밥보다 법> 제7회에서 '소비자 분쟁-전자상거래 편'을 다룬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시의성에 부합하고 소비자들에게 분쟁시 대처 요령 등 정보를 신속히 제공해 피해를 예방 또는 최소화하고자한다는 점에서 탁월한 기획으로 보여진다.

<밥보다 법>은 1회에서 7회까지 부동산 거래, 교통사고 대처법, 코로나19 무급휴가 보상, 보이스포싱 대처법, 가짜뉴스 대응, n번방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등 시사성 있는 이슈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아이템을 다뤄 수용자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생활법률을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콘셉트와 기획의도를 살려나가면서 법률상식 대중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점이 돋보여 정체성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 【구성 및 내용】

<밥보다 법>은 온라인 구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분쟁의 다양한 유형 및 이에 대한 소비자의 적절한 대응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았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외출을 자제하며 온라인 쇼핑 등의 비대면 구매가 많은 요즘에 적합했다. 또한 밥상머리 토크 코너를 개선하여 밥상머리 차트로 전환한 것은 적절한 변화로 보인다.

밥법드라마에서는 택배 분실 시 환불처리에 있어 판매자의 불합리한 업무처리에 대한 소비자의 대응을 소개해주었고 법률다락방에서는 온라인 구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소비자 분쟁 유형 및 택배사고에 따른 소비자대응방법, 소비자 분쟁 해결방법 등 전자상거래에 있어 다양한 소비자 분쟁 사례를 전해주었다.

택배사고, 소비자대응방법으로는 택배수령 이후 문제 발견 시 14일 내 업체에 알려야 하며, 환불규정에 있어 택배회사의 규정이 아닌 따로 법률이 존재하므로 소비자는 충분히 다룰 수 있다.

소비자 분쟁 발생 시 민사소송과 더불어 경우에 따라 형사소송도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소비자는 적은 금액의 경우 소송까지 가기에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한국 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다.

개봉 시 교환, 환불 불가의 경우 스티커를 뜯어 상자를 열지 않고 내용물의 하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환불 불가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복제가 가능한 물품의 포장을 뜯거나 디지털 콘텐츠, 기성품이 아닌 맞춤형 상품의 경우는 환불이 불가한 유형에 포함된다. 또, 집 앞 택배 분실 시 책임소재 원칙은 택배기사가 직접 고객에게 전달해야 한다. 다만 고객 요청으로 택배 기사가 문 앞에 주었는데 분실될 경우에는 기사 책임이 없다.

프로그램	사운드멘터리 풍경 소리		
방송일자	2020. 4. 18.	시청률	0.199

## 【총 평】

〈사운드멘터리 풍경소리〉 제8회는 항구도시 부산의 추억과 가파른 절벽 위의 삶, '부산 원도심 골목, 그 흥망의 역사'를 방송하였다. 특히, 국제도시로서 화려함 뒤에 피란시대 산비탈의 묘지위에서 부터 절벽 아래 바다가 보이는 산 절벽에 집을 짓고 생존하며 지금까지 살고 있는 부산 원도심의 이야기는 사람냄새 진하게 풍기는 또 다른 매력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부산 원도심을 한국전쟁이 빚어낸 피난민들의 역사로 해석하며 피란의 상처를 안고 사는 부산의 소리를 담아냈다.

피란민 세대의 어렵고 힘겨웠던 삶의 모습이 진한 삶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사운드멘터리 풍경소리〉의 시간이었다. 하루가 다르게 바빠 변하고 있는 요즘 시대에 묘지위에 집을 짓고 살았던 삶의 흔적은 묘지일지라도 편안하고 따듯한 보금자리로 보였다.

전반적으로 당시의 분위기를 고즈넉하게 표현을 잘 해주었고 그 속에서 볼거리, 즐길 거리, 고향의 맛까지 다양하게 표현을 해주어 보는 재미를 더했다.

## 【구성 및 내용】

부산의 원도심 아미동 묘지마을의 역사와 사연을 전해 주었다. 피란의 상처를 딛고 일어난 부산시 서구 아미동, 부산시 동구 좌천동, 부산시 영도구 흰여울마을을 소리에 품으며 부산을 이야기 했다. 아미동 비석 마을 곳곳에 위치한 판자집과 비석을 소개하는 장면은 굉장히 흥미롭고 신기한 광경이기도 했지만 비석 속에 아픈 역사가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 피란민들의 아픔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부산시 서구 아미동 골목의 소리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이 사용하던 묘지 터이자 한국전쟁 피난민들이 묘지 위에 집을 짓고 살았던 비석마을, 그 속에서 60여 년 넘게 이발소를 운영하며 생활 기반을 잡은 이발사와 단골손님들의 삶, 그리고 그들의 일상이 소개되었다. 부산시 동구 좌천동에서 들려준 이야기는 나전칠기 명인의 빛나고 소박한 삶의 소리, 잊혀져가는 자개농과 칠개농의 소리는 감동을 자아냈다. 나전칠기 명인의 빛나고 소박한 삶의 소리는 감동을 자아냈다. 자개 장농을 잘 찾지 않아 잊혀져 가는 직업이지만 한 평생 나전칠기 일만 해온 장인의 모습이 색다른 감동을 주었다. 특히, 이 장인은 어릴 때부터 척추 장애를 앓고 있는 터라 더 깊은 감동을 주었고, 자개를 자르고 붙이는 과정에서도 섬세한 소리를 잘 잡아냈다.

부산시 영도구 영선동 흰여울 문화마을 역시, 산동네의 역사를 담은 터전으로 부산의 바다를 제대로 표현해 주었고 갯벌에서 군소를 채취하는 모습부터 시작해서 바닷소리도 시원하게 잡아냈다. 직접 곰피를 채취한 남성이 운영하는 작은 식당까지 이동해서 다소 생소한 곰피에 대해 상세하게 전달했다. 피란민들의 허기를 달래준 시락국과 고등어회 등에는 바다와 부산 시민들의 아픈 역사와 추억이 배어있었다.

프로그램	PD리포트 이슈 본(本)		
방송일자	2020. 4. 19.	시청률	0.003

### 【총 평】

<PD 리포트 이슈 본> 제294회는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형 방역체계'를 방송하였다. 미증유의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속에서 한국의 품격을 보여준 방역체계와 세계 표준이 된 한국형 방역 모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다. 세계 2위의 코로나19 확진자 보유국이었던 한국이 어떻게 해서 세계 표준의 방역 모범 국가가 됐고, 126개국의 SOS 진단키트 요청으로 한류바람을 일으키게 됐는지 등 체계적으로 취재하여 깔끔하게 정리했다.

한국이 코로나19 방역 모범 국가로써 국가 간 공조 역할의 중심선상에 선 모습, 외국인의 눈에 비친 한국 코로나19 대처 탁월함, 외신에 비친 한국의 방역 강국 이유, 세계 방역 대처 실수, 진단키트 한류 바람, 정상외교에 박차를 가하는 정부 등으로 구성해 대한민국의 품격을 제대로 담아냈다.

### 【구성 및 내용】

세계가 극찬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에 관한 우리정부와 국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재한 외국인들로 부터 들었고, 대한민국이 제2의 고향, 조국으로 아꼈 만큼 한국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넘치는 모습을 전해주어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방송이었다. 드라이브 스루 방법의 진단검사는 획기적이었고 확진자의 이동경로 등을 공개하여 동선이 겹치는 다른 사람들의 주의와 격리조치도 확산 저지에 일조했다. 특히, 각 나라가 이동제한과 입국을 제한할때 우리 정부는 빠른 검사와 빠른 확진결과, 빠른 격리, 빠른치료에 주안점을 둔 선제적 조치가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방역 성공에 큰 역할을 하였다

해외언론 보도와 실제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방역모델이 왜 주목을 받고 있는지 분석했고 진단키트에 초점을 맞추어 얼마나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지, 생산라인을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는지 등을 강조했다. 진단키트 유통과정에서는 보건당국과 일본이 협력하여 1년 걸릴 승인 과정을 단 7일만에 빠른 승인을 해준 것을 집중조명했는데 여기에서 위기에 대처하는 행정이 제대로 부각되었다. 또한, 진단키트(진단기구)를 다루면서 진단키트 회사를 섭외 취재한 점은 프로그램에 힘을 실어준 취재였다. 이와 함께 진단키트 실체를 보여준 점은 흥미로웠고 구체성을 띠어 메시지 전달이 확실했다.

코로나19사태 초기에 우리나라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던 이스라엘과 덴마크 등이 최근 사과 메시지와 함께 진단키트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을 소개해서 달라진 국제적 위치를 실감나게 만들었다. 이 외에도 미국을 비롯해 중국, 프랑스, 사우디, 캐나다, 에티오피아 정상과 직접 통화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부각시켜 우리의 외교관계에 대해 더욱 기대감을 갖게 만들었다.

<PD 리포트 이슈 본>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형 방역체계'는 정부·민간·제약회사·의료기관·국민 간의 공조가 매우 성공적이었음을 잘 보여준 기획 구성이었다.

프로그램	귀농다큐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20. 4. 19.	시청률	0.005

### 【총 평】

<귀농다큐 살어리랏다> 제29회 '장수군 수제 맥주를 아시나요'는 제목부터 색다르게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었다. 물 좋은 청정지역에서 수제 맥주를 만들고 감각있는 레스토랑을 만들어 운영하는 귀농 5년차 50대 중반 남성이 주인공이었다.

특히, 사회복지사가 어떻게 귀촌해 작은 양조장을 운영하게 됐는지, 왜 인기를 모으게 됐는지, 수제 맥주는 어떻게 만드는지, 귀농동료와 상생하는 과정, 또 다른 새로운 도전 등 과정이 다큐식으로 전개돼 잔잔한 감동과 몰입감을 높였다. 특히, 수제 맥주 만드는 과정과 노하우를 자세히 소개한 부분은 관심있는 시청자에게 필요한 정보가치가 있었다.

파전과 막걸리로 상징되는 농촌의 모습을 피자과 수제 맥주 분위기로 바꾸는 데 성공한 귀농인의 새로운 도전은 '나이에 걸맞는 멋진 인생 맥주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혀 그의 미래가 기대된다. 또한, 목련꽃을 채취해 목련차를 끓이는 장면, 혼합 피자를 만들어 수제 맥주로 이웃 귀농 동료들과 정담을 나누는 모습이 망중한의 여유로 다가왔다.

### 【구성 및 내용】

'장수군 수제 맥주를 아시나요'는 덕유산 끝자락에 위치한 전북 장수군의 한 마을에 귀농하여 양조장을 운영하는 귀농인의 수제맥주에 대한 사랑과 노력을 그렸다. 해발 600m의 마을 폐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작은 양조장과 식당을 만들어 수제 맥주 만들기 꿈을 이룬 귀농 5년차 50대의 이색적인 소재가 시선을 모았다.

우리나라에서도 수제 맥주 관심이 높아지는 소비자 트렌드에 착안해 '우리나라에서 제일 시골에 가장 작은 양조장'이라는 콘셉트 속에 문을 연지 2년째 인근 주민들과 소비자들의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장수군 수제 맥주를 아시나요'라는 제목이 특정 농촌지역과 수제 맥주를 연결시켜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한 마케팅 전략이 주효했다.

양조장과 펍(Pub)을 함께 운영하면서 입소문을 타고 시골마을에 맥주를 마시러 오는 손님들이 늘었고, 낯설어했던 이웃들도 즐겨 찾는 곳이 되었다. 수많은 맥주의 맛을 만들어내는 제조공법과 배합기술 등을 자세히 소개했고,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입맛에 맞는 안주 및 음식을 개발하는 섬세한 노력까지 자세히 담아냈다.

또, 방치되었던 마을의 작업장을 인수해 양조장과 레스토랑으로 만들어낸 일련의 과정들과 제대로 된 수제맥주를 만들기까지 겪었던 실패담, 귀농 후 정착하기까지 큰 도움을 주었던 이웃 선배 귀농부부와의 귀한 인연 등 함께 성장해가는 모습을 밀도 있게 담아냈다. 하루일과를 마치고 맥주제조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연구와 색다른 메뉴 개발을 위한 노력, 양조장 뒤 척박한 땅을 개간해 텃밭을 만들어 직접 식재료를 재배하는 세심한 정성도 의미 있게 담아냈다. 또 레스토랑에서 수제맥주를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과 한가로운 시골의 정취를 만끽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특색 있게 담아냈다.

프로그램	KTV 온라인 세상		
방송일자	2020. 4. 21.	시청률	0.000

### 【총 평】

<KTV 온라인 세상>은 문워크 BEST10을 방송했다. 대통령의 행보와 정책속에 친근한 모습이 부각되어 인간적인 미와 정치적인 결단력 등을 느낄 수 있었다. 문워크는 인기 유튜브 채널로서 콘텐츠 완성도가 높은 프로그램으로 문대통령과 BTS의 첫 만남, 오사카 G20 정상회의, UAE 아크 부대 방문 등이 소개되었다.

온라인 세상은 연령대에 따라 '유튜브 채널이나 자료'에 접근성이 덜한 시청자들을 위해 '재미난 영상'을 TV로도 접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유튜브 채널로 유입을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됐다.

### 【구성 및 내용】

온라인 세상은 문워크 BEST10은 백화원에서 생긴 일, UAE 아크 부대 방문, CNN도 보도한 진단 장비 기업, 광주 비엔날레 개막식 현장, 오사카 G20 정상회의, 국내 기업의 저력 코오롱 인더스트리, 문 대통령 앞에서 울음터진 교수의 반전 사연 등이 소개되었다.

#### ■ 문대통령과 BTS의 만남

한불 우정의 콘서트 현장에서 우리나라 아티스트들의 공연을 관람하고 BTS와의 만남 현장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문대통령과 BTS와의 프랑스 파리에서 만남 스토리와 한류 바람의 최정점에 있는 BTS 공연을 실감나게 전했다. 특히, BTS멤버들의 이름을 외우고 있는 문대통령의 모습과 노래를 따라 부르는 김정숙 여사의 모습속에서 국민과 더불어 항상 공감하고 호흡하려는 대통령 내외의 모습이 진심으로 다가왔다.

#### ■ G20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 2박 3일을 소개했다. 한일관계의 내재된 갈등 관계의 모습으로 국내 정치권에서는 시끄러웠던 상황도 있었으나 차분히 대처하는 문대통령이 모습이 다가왔다. 오랜 역사적인 국가적 식민관계의 갈등과 양금이 남아있지만, 문대통령은 공식적 국제행사를 통해 밝고 온화한 표정으로 국제적 외교 매너를 한껏 발산하여 국가의 격을 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 UAE 아크부대 방문

아크부대를 방문해 부대원들을 격려하는 모습을 감동적으로 제작했다. 특히 부대원과 가족의 깜짝 만남 등이 적절하게 부각되었다. 특히, 중동 UAE 아크 부대 이○○대위의 개인적 사연에 대한 깜짝 이벤트는 감동의 눈물을 남겼다. 이○○대위는 결혼 일정을 미루고 파병되어, 고국에서 예비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에게 전하는 인사말이 방송으로 전해지고 난 뒤 실제로 중동 아크부대 현장에 예비신부가 참석해서 극적 상봉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행사를 준비한 우리 정부의 세심함과 따듯함이 문대통령의 행보와 일치하여 더할 나위 없는 감격을 남겨준 영상이었다.

프로그램	국민리포트		
방송일자	2020. 4. 21.	시청률	0.003

## 【총 평】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최근 진정국면으로 접어들었으나 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때는 아니다. 정부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추가 연장했다. <국민리포트>는 코로나19 관련 아이টে을 집중 배치해 핫이슈에 대한 수용자 니즈를 우선한 기획이 돋보였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그간 연기되었던 초중고의 온라인 개학, 외출을 꺼려하는 이들을 위한 자동차 극장, 집 주변 생활방역을 위한 주민센터의 방역장비 대여, 코로나19 예방수칙, 대학교수의 개인 기록물 박물관 마련 등 시의성 있는 다양한 소재와 구성이 정보 제공면에서 수용자 만족도를 높였다.

## 【구성 및 내용】

<국민리포트>는 최근 핫이슈인 코로나19 관련 아이টে을 집중적으로 보도한 점이 시의성과 주목도를 높였다.

‘온라인 개학은 했지만?’은 초중고교 첫 온라인 개학 표정을 스케치한 뒤 학생과 학부모의 반응, 현장의 문제점과 과제를 짚어 취재 완성도를 높였다. ‘방역소독기 빌려드려요’는 무료 장비 대여와 주민 스스로의 자율방역으로 코로나로부터 주민 스스로를 지키는 현장을 보여줌으로써 메시지 전달력, 정보 제공과 함께 캠페인 효과를 높인 점이 돋보였다. ‘안전한 자동차극장 인기’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가족끼리 색다른 추억으로 코로나 불루를 탈출하고 힐링하는 소재를 소개해 시선을 끌었다. 특히, 온라인 첫 개학 영상, 자동차극장의 영화상영 장면, 1984년도 전화요금 영수증, 80년대 빛바랜 노란 월급봉투 영상 등이 시각적 몰입도와 메시지 전달력을 높였다.

### ■ 사상 첫 초중고 온라인 개학…학생·학부모 반응은?

처음 시행된 온라인 개학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과 개선점에 대해 살폈다. 온라인 수업의 장·단점과 의견을 적절히 곁들여 공감도를 높였다.

### ■ "코로나, 잠시 잊으세요"…자동차 극장 인기

극장을 가기 꺼려하는 시민들을 위해 자동차 극장이 인기를 얻고 있다. 서울 성동구의 체육공원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무료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 ■ 생활 주변 자체 방역…장비 무료로 빌려드려요

코로나 방역소독기의 무료 대여와 살균소독제 무료 제공 정보를 안내하면서 신청절차를 소개한 점이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였다.

### ■ 교수가 35년 모은 기록물…박물관이 되다

부산의 한 대학교에는 교수가 35년간 모은 기록물들이 전시된 기록박물관이 있다. 시시대상을 반영하는 기록물을 수집한 교수의 집념을 잘 표현해내 흡인력을 제고했다. 또, 1984년도 전화요금 영수증, 80년대 빛바랜 노란 월급봉투 등이 당시 기억을 소환했다.

프로그램	톡톡 사이다경제		
방송일자	2020. 4. 23.	시청률	0.015

### 【총 평】

<톡톡 사이다 경제> 제244회 ‘오늘의 주요 경제&이슈’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민생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일자리 문제와 코로나19 대응, 고용 위기 극복 방안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또 ‘그 밖의 경제이슈’에서는 “4월 수출입 통계 발표와 분석, 한국 국가신용등급 AA유지 의미, 미 메릴랜드주 한국산 진단도구 확보”에 대해 설명했고, ‘S&News’에서는 코로나19 현장 의료진을 위한 “덕분에 캠페인”과 “코로나19가 준 변화” 등을 소개했다.

### 【구성 및 내용】

코로나19 이후 ‘고용시장 현황과 고용관련 경제지표’를 정리했고, ‘3월 수출입 통계발표’를 분석했다. 오늘의 주요경제&이슈에서는 “코로나19 대응, 고용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11년 만에 최저치로 위축되어 마이너스 1.4%를 기록하였다. 코로나19 여파 인한 실업 증가와 세계적 실업 대란 우려, 중소기업 고용유지지원금 한시 적용 내용, 고령 노동자 재취업 지원,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 대책, 정부 긴급고용안전대책 등을 살펴보았다.

올해 3월의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시작했는데, 1997년부터 현재까지의 추이를 그래프로 준비해 지난 20년이 넘는 고용동향을 한 눈에 볼 수 있어 좋았다. 단순히 수치로만 나타낸 것이 아니라 특이점을 나타난 시기에 대해서는 따로 경제적인 원인을 추가로 설명해 이해를 도왔다. 특히, 과거 2009년 금융위기와 코로나 속 경기침체의 차이를 분석해본 것도 꽤 의미가 있었다.

실업 문제에서는 우리나라 상황 뿐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의 상황도 두루 살펴보고, 중소기업 고용유지 지원에 관한 내용과 재취업 교육 지원에 관한 내용을 덧붙여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도 자연스럽게 부각되었다. 또한,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를 위한 정책도 살펴보는 등 꼼꼼하게 다루어 인상적이었다. 고령 노동자 재취업에 관한 제도가 5월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한국 신용등급 평가 자료를 제시하고 최근 국가브랜드 상승과 높아진 대외신인도에 관한 언급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와 함께 진단키트에 관한 메릴랜드 주지사와 트럼프 대통령간의 가십을 언급한 부분하며, 트럼프 특유의 꼬인 성향을 직설적으로 지적한 부분이 주목도를 높였다.

S&뉴스코너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정리해서 준비했기 때문에 마무리를 아주 훈훈하게 지을 수 있었다. ‘덕분에’ 챌린지에 관한 소개도 뽕뽕했고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도 공감가는 것이 많아서 흥미로웠다. 마지막에 소개된 ‘아기상어’의 손 씻기 버전도 아주 재밌고 유익한 것이어서 제시한 대로 실제 원본 영상을 찾아보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



프로그램	현장출동 안전이 먼저다		
방송일자	2020. 4. 23.	시청률	0.000

### 【총 평】

국가재난상황으로까지 악화됐던 코로나19 사태가 진정국면에 접어들어 해외의 찬사와 주목도가 높아졌다. 성공적으로 코로나19가 진정된 데는 무엇보다 의료진의 사명감과 봉사 정신, 국민들의 자발적인 방역참여가 결정적 요소였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장출동 안전이 먼저다> 제30회 '힘내라 대한민국 - 자원봉사, 마음의 거리를 좁힌다!'는 사회 곳곳에서 자원봉사를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수범사례를 소개해 국민 일체감을 높인 기획이 돋보였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자원봉사와 따뜻한 나눔의 손길로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미담이 잇따라 소개돼 국민통합에 기여함과 동시에 캠페인 확산 효과도 기대된다. 자원봉사자의 보람과 수혜자의 고마움이 감동의 메시지로 전달됐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어서요"라는 한 자원봉사자의 이야기에서 느껴지듯이 시민들의 작지만 의미 있는 움직임을 소개했는데, 무엇보다 현 시점에 우리에게 필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하는 계기를 제공해 의미 있었다.

### 【구성 및 내용】

<현장출동 안전이 먼저다> 제30회는 자원봉사로 마음의 거리를 좁힌 이들의 활동현장을 다녔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난 극복의 아젠더를 제시하고 일체감 조성에 앞장섬으로써 공적책무 구현이 탁월했다. 온정과 나눔의 손길이 끊이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봉사활동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부각시켜 시사하는 바가 컸다.

코로나 의심환자를 분류 및 검사하는 지역 선별진료소는 대체 인력이 절실한 상황으로 이에 각 지역 의사들은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확산으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활용하여 물품기부 행사가 진행 중이다. 민간방역업체는 곧 학생들을 맞이할 학교의 방역봉사를 시행하고 있다. 또, 시민방역봉사단은 희망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소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사람들 손이 많이 닿는 민간 체육시설과 화장실 등을 중심으로 봉사활동을 지속 중이다. 마스크를 만드는 봉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각자의 제봉기술을 활용해 마스크를 만들어 소외계층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업체들을 위해 지자체에서 지원한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지출을 늘리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미리 선결제를 통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착한 소비도 이어지고 있다. 또, 생필품 키트를 자원봉사자들이 각 취약계층 가정 및 지역아동센터 등에 배달하는 사업도 시행 중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농번기 일손부족 현장 발생으로 자원봉사자들이 농가를 방문하여 일손돕기에 나섰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급식도 중단되어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도 발생했으며 이런 판로 막힌 농가를 돕기 위해 아파트 등의 시민들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진행하여 농가에 힘이 되어주고 있다.